

추가지문1

Findings interpret deficit perspectives on minority youth in Korea.

연구 결과는 한국의 소수민족 청소년에 대한 부족한 관점을 해석합니다.

At a macro level,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attracted varying characterizations from a marginalized group, to a threat, and to global human resources.

거시적 수준에서 "다문화" 가정과 어린이는 소외된 집단에서 위협적인 집단으로, 그리고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다양한 특성을 끌어 모았습니다.

These conflicting but simplified newspaper discourses reflected a particular discrimin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who were somehow not "Korean enough."

이러한 상반되지만 단순화된 신문 담론들은 왠지 "한국적"이 아닌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반영했습니다

Simultaneousl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lso revealed no language proficiency difference between "multicultural" youth and their peers.

동시에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다문화" 청소년과 또래들 간의 언어 능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his finding refuted the fundamental assumption that their deficiency in Korean was responsible for numerous issues in society.

이 연구 결과는 그들의 한국어 부족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At a micro level, this writing illustrated how the six "multicultural" teenager, regardless of their situations and interests, found ways to use globalization to their own advantage in living with multiple language and cultures and in 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미시적 수준에서 이 글은 여섯 명의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에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세계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었습니다.

Specifically, building upon their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s in school and taking advantage of their linguistic cultural resources, Tayo and Sungho were establishing themselves as more competent and conscious members of society.

구체적으로 타요와 성호는 학교에서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언어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유능하고 의식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Similarly, Jinsoo and Heedong visualized alternative places to live, study, and/or work around the world and were developing their identities as cosmopolitan citizens who would cross national boundaries freely and value solidarity as well as dialogues.

이와 유사하게 진수와 희동은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장소를 시각화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대를 중시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Lastly, by navigating diverse channels to communicate with others (e.g. drawing, technology) Hayang and Artanis were growing up to be "multilingual" subjects who would strategically use various resources to make meaning.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탐색함으로써 (예: 그림, 기술) 하양과 아르타니스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어" 과목으로 성장했습니다.

Through this study, I would ultimately argue that "multicultural" children are neither "minority" nor "multicultural"; but they are –or can be– elites, cosmopolitan citizens, and artistic multilingual subjects who can become contributing citizens in Korea and in the world.

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문화" 아동들은 "소수"도 "다문화"도 아니지만, 한국과 세계에서 기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세계 시민, 예술적 다국어 주체일 수 있습니다.

In this sense, if we are willing to "dig a little deeper" into the lives of these remarkable youth, we can resignify the unwarranted stereotypes from which they suffer, redefine constructs like "multicultural," and deconstruct ideologies of oppression that continue to haunt minority youth to this very day.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목할 만한 젊은이들의 삶에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통 받는 부당한 고정관념을 사임하고, "다문화"와 같은 구조를 재정립하고, 소수의 젊은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억압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문1

Findings interpret deficit perspectives on minority youth in Korea.

At a macro level,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attracted varying characterizations from a marginalized group, to a threat, and to global human resources.

These conflicting but simplified newspaper discourses reflected a particular discrimin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who were somehow not "Korean enough."

Simultaneousl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lso revealed no language proficiency difference between "multicultural" youth and their peers.

This finding refuted the fundamental assumption that their deficiency in Korean was responsible for numerous issues in society.

At a micro level, this writing illustrated how the six "multicultural" teenager, regardless of their situations and interests, found ways to use globalization to their own advantage in living with multiple language and cultures and in 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Specifically, building upon their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s in school and taking advantage of their linguistic cultural resources, Tayo and Sungho were establishing themselves as more competent and conscious members of society.

Similarly, Jinsoo and Heedong visualized alternative places to live, study and/or work around the world and were developing their identities as cosmopolitan citizens who would cross national boundaries freely and value solidarity as well as dialogues.

Lastly, by navigating diverse channels to communicate with others (e.g. drawing, technology) Hayang and Artanis were growing up to be "multilingual" subjects who would strategically use various resources to make meaning.

Through this study, I would ultimately argue that "multicultural" children are neither "minority" nor "multicultural"; but they are –or can be–elites, cosmopolitan citizens, and artistic multilingual subjects who can become contributing citizens in Korea and in the world.

In this sense, if we are willing to "dig a little deeper" into the lives of these remarkable youth, we can resignify the unwarranted stereotypes from which they suffer, redefine constructs like "multicultural," and deconstruct ideologies of oppression that continue to haunt minority youth to this very day.

추가지문1

연구 결과는 한국의 소수민족 청소년에 대한 부족한 관점을 해석합니다.

거시적 수준에서 "다문화" 가정과 어린이는 소외된 집단에서 위협적인 집단으로, 그리고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다양한 특성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러한 상반되지만 단순화된 신문 담론들은 웬지 "한국적"이 아닌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다문화" 청소년과 또래들 간의 언어 능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들의 한국어 부족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이 글은 여섯 명의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에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세계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요와 성호는 학교에서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언어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유능하고 의식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진수와 희동은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장소를 시각화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대를 중시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탐색함으로써 (예: 그림, 기술) 하양과 아르타니스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어" 과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문화" 아동들은 "소수"도 "다문화"도 아니지만, 한국과 세계에서 기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세계 시민, 예술적 다국어 주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목할 만한 젊은이들의 삶에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통 받는 부당한 고정관념을 사임하고, "다문화"와 같은 구조를 재정립하고, 소수의 젊은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억압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